

정부 전기차 보급 확산 논의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만개 · 수소충전소 310개 구축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

정부가 전기·수소차 시장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전 요금을 할 인하기로 했다.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2022년까지 전기 충전소는 1만개, 수소충전소는 310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기차는 지난해 기준, 1만3826대가 보급됐다. 2014년부터 매년 전기차 보급 물량이 두 배 증가했으며 최근 2년간은 당해연도 보급 물량이 그간 누적 보급 물량을 뛰어 넘고 있다.

올해에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기아차 니로 등 신차 출시 영향으로 4월까지 사전 계약 대수가 이미 3만 9000대를 돌파했다.

수소차는 지난해까지 누적 기준, 총 177대가 보급됐다. 올해에는 현대차 넥쏘 출시로 746대가 공급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가 자동차 산업

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선도사업이라고 판단, 보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기 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요금 50% 할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소차도 동급 내연기관차량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내연기관과의 가격차이, 생산량, 핵심 부품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는 2022년까지 보조금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하되 가격 격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는 35만대, 수소차는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매년 1500~1800기 보급하고 완속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를 보급한다.

초소형과 버스, 택시 등 모든 형태의 전기차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충전소도 구축한다. 한편 국전력은 2019년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대형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도 고속도로·국도 주요 휴게소 160곳과 150곳 도시거점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제작사, 공공기관, 가스업체 등 수소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민간 SPC도 올해 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기 위해 중형 SUV, 프리미엄급 전기차, 승합차 등 전기차 모델 개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는 수소 농도센서, 저장용기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수소 충전소 국산화율을 현행 4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영태 기자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에 상인회 책임 강화

임시시장 개설시 민원 편의 개선 광역단위 전통시장 육성 체계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에 시장 상인회에도 책임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시 민원 편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운영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지는 법에서 시장관리자의 업무에만 화재예방을 규정하고 있고 상인회에는 화재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에 책임성이 부족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이전에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광역단위 내 활성화사업 추진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청년농부 일본연수 지원

전북농협은 6월 정례대회에서 고향군 공음면에서 미니수박을 생산하는 청년 농부 강상훈(25) 대표에게 일본 선진농가 해외 연수권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 팜에 대한 동기부여와 선진 영농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강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미니수박

의 맛을 보고 1~2인 핵가족 시대에 적합한 품목이라 판단, 2017년 첫 고향 애플수박을 생산했다.

이후 고향 애플수박작목반을 결성하고 12 농가에 재배기술을 전파 및 유통하는 역할을 하며 소비자와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고창한우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롯데백화점과 수도권 농협하나로 클럽 등에 판매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키운 고창한우 유네스코 한우 박람회 초청 판매행사 성황

고창군과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이 '고창한우'가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국민 만찬에 선정돼 '한우'의 위상을 드높인 데 힘입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롯데백화점과 수도권 농협하나로 클럽 등에 판매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고창한우'는 롯데백화점에서 추진하는 '유명브랜드 한우 박람회'에 초청돼 본점과 9개 매장에서 판매행사를 가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락지와 탐사트러스지, 깃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키운

'청정 고창한우'를 믿고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고창부안축협 김대중 조합장은 "요즘은 음식문화가 양보다는 질 위주로 변하고 있어서 가축이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을 섭취했다는 지부터 가축의 생애 중 스트레스성 물질이 인간의 섭취 과정에서 전이된다는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창한우는 현재 벗짚사육을 통한

믿을 수 있는 사료급여, 왕겨사육을 통한 위생적인 축사관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산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우리나라 예산제도, OECD 평가서 '우수'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39차 OECD 고위예산담당국자(SBO) 연차총회가 개최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예산실장이 이번 총회의 선임 평가자로 참석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OECD가 각국의 예산 제도와 개혁 방향을 총망라해 작성한 '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예산제도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 분야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OECD 예산제도 비교 지표인 중기 재정계획(0.83), 성과주의 예산(0.61), 공개·투명·포용성(0.69)에서 우리나라는 모두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특히 성인지예산(0.81)은 조사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

년 간 OECD 회원국의 재원 배분 초점이 자본지출·기반시설 보다는 민생에 밀접한 보건복지·일자리·녹색성장의 수요 주도 분야로 이동해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예산 개혁은 투명성, 국민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두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가을 정식 발간될 예정이다.

구 실장은 "최근 들어 직면한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과 인구구조 변화 압박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재정립이 긴요해졌다"며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그간의 재정 개혁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의 재개혁(reforming the reforms)'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인 'OECD SBO 국제재정포럼'의 주제는 한국 측이 제안한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을 다루기로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JB 커리어 캠프 참가자 모집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는 도내 대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6회 2018 JB 커리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취업 및 창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취업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맞는 취업 역량 및 리더십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비전탐구, 비전 달성 액션플랜 세우기, 셀프마케팅 및 셀프리더십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0일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40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사회공헌부(063-250-7495)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JB인문학 강좌 등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캠프에서도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비전과 진로 방향을 설정해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이통3사, 15일 경매 개시 5G 주파수 할당 '적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개사 모두 적격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중 각 이동통신사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주파수경매 참여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주파수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에 3.5GHz 대역, 28GHz 대역 총 2680MHz 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에 의해 할당기로 공고하고, 지난 4일까지 이통 3사의 할당신청 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금연캠페인